치과임상사진

Ⅰ. 치과임상 사진촬영의 목적과 의의

국군통합병원 교정과 송 세 진

필자는 1986년의 교정학 전공의 학술대회에서 "치과교정과 영역에서의 임상사진"이란 연제로 발표를 한 바가 있다. 필자가 수련을 받은 대학병원 교정과 교수님들의 임상사진에 대한 관심은 대단하여서 그 분들의 영향을 상당히 받았다. 당시에는 임상사진에 대한 식견이 좀 있다고 자부하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보잘것이 없었다.

1839년에 다게레오타입(daguerreotype)의 사진이 공표된 이후 사진이 응용되지 않은 분야는 거의 없는데, 치의학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진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서 어쩌면 사진의 중요성을 잊고 있는지도 모른다. 많은 치과의사들, 혹은 다른 의료요원들은 관심을 가지고 임상사진 촬영을 하고 있으나, 임상사진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나 정보, 교육이 없어서 많은 시간과 노력, 돈을 낭비하고 있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치료와 관련하여 촬영을 한 슬라이드 사진을 나중에 정리하다 보면 부실하게 촬영된 처음의 사진을 재촬영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확한 임상사진에 대한 개념이나 촬영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상황은 전개되지 않을 것이다.

필자가 『치과임상사진』이란 주제로 연재를 하는 목적은 고급사진(guality photograph)을 만들어 내는 데 있다. 고급사진술은, 고급진료와 연관되는데, 단순히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고 사진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사진을 만들 때는 그 사진이 명료하고 깨끗하게, 크게 노래하도록 히야 한다. 고급사진은 노래를 하므로 환자와 동료, 청중들은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슬라이드 사진 촬영의 부차적인 효과로 술자는 관찰이 철저해지며 치밀한 질료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다.

〈그림 설명〉 - 사진촬영의 의의 및 문제점들의 예.

그림 1, 2, 3 : 교정치료 후의 구강내 사진. 사진의 구성·심도·명도가 적절하여 보는이에게 깨끗한 느낌을 전달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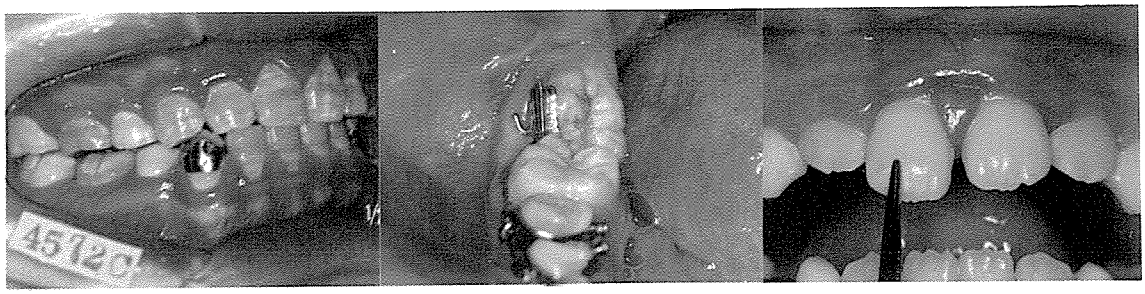

그림 4: 테트라사이클린 Staining 환자의 교정치료 후 모습. 자세히 관찰하면 상·하악 제2소구치와 제2대구치의 크라운이 석회화 되기 전에 많은 양의 테트라사이클린을 복용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정확한 사진은 법치학적의의를 가진다.

그림 5: 완전히 수평으로 매복된 하악 제2대구치를 교정치료로 uprighting시키고 있는 모습. 제1, 2대구치를 관심의 촛점으로 하여 깨끗이 촬영된 경우이다.

그림 6: ugly duckling stage에 부당한 교정력을 가함으로써 상악 중절치의 extrusion과 mobility를 야기한 증례·반드시 기록으로 남겨 둘 필요가 있다.

그림 7. 악성종양으로 인해 절제한 상악의 표본. 촬영할 때 포르말린 용액이 바닥에 묻어서 배경이 조금 지저분하게 보인다. 물기가 있는 표본을 촬영할 때에는 다른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그림 8: 일고의 가치가 없는 사진의 예. 촬영하고자 하는 목표가 뚜렷이 나타나 있지 않다. 렌즈의 초점이 흐리며, 환자의 번호표식이 지저분하게 화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충분한 cheek retraction이 되지 않았다.

그림 9: Alginate Impression사진. 이것은 부분적합한 빛의 모델링(modeling)으로 인해 치아의 요철이 반대로 나타난 경우이다. 움푹 파인 치아의 면이 불룩 튀어 나온 것처럼 보인다. 치아와 치아의 경계부위(화살표)만을 조심스럽게 살피면 오목한 느낌이 들지만, 빛이 집중된 cusp tip(화살표 머리)까지 주의를 확산시키면 전체적으로 치↙

↘은부위에 대해 치아가 튀어 나온 느낌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음영을 제대로 살리기 위한 조명이 필요하다.

*다음호에는 '카메라 장비 및 필름의 선택'에 관해 논한다.